

최연의 산 이야기 <28> 가야산 2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바라본 안산. 나즈막하면서도 편안하게 둘러쳐 있다.

해인사를 품고 있어 산격이 더욱 빛나는구나

<山格>

가야산은 삼보사찰(三寶寺刹)의 하나인 법보종찰(法寶宗刹) 해인사(海印寺) 때문에 성지(聖地)로서의 격(格)이 한층 높아졌다. 해인사 터는 행주형(行舟形) 바다로 나가는 배의 형국의 명당이다. 주산(主山)인 뒷산이 매우 웅장하고 앞산인 안산(案山)이 수려하고 나지막하여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행주형의 명당은 보통 해상(海商)이나 수군(水軍)의 장수 등을 많이 배출하며 대부분 안산이 돛대나 노처럼 생겼다.

그런데 해인사는 안산이 봉황처럼 생겼고 돛대가 명당 안에 있어 여는 행주형과 많이 다르다. 명당 안에 돛대를 갖추었으니 그 기세가 말할 수 없이 뛰어나고 또 상서로운 봉황을 배에 실었으니 성스러운 기운이 크게 감돌아 범속(凡俗)을 초월한 대도인(大道人)이 나올 곳이다. 그래서인지 해인사 스님들의 호연지기는 일제시대 친일행각으로 유명했던 이회광(李晦光) 스님의 해인사 주지 부임에 거세게 반대하여 이회광 스님이 주지직을 포기하고 해인사를 떠나게 만든 사례도 있다.

해인사 담장 뒤에는 수마노탑이라고 불리는 탑 하나가 있다. 이 탑이 선 자리에는 원래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그 바위 이름이 돛대바위인데 해인사 터가 배의 형국이니 이 배의 돛대 역할을 했던 바위이다. 그런데 일제 때 해인사 스님들이 반일감정이 강했고 그중에는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한 스님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를 미워한 일본인들이 해인사의 지기(地氣)를 막기 위하여 돛대바위를 깨뜨려버려 해인사 터는 돛대 없는 배 형국이 되어버렸다.

배가 돛대가 없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는데 해인사도 한 동안 주지스님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떠나고, 해인사를 찾은 수행자들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는 것이다. 이를 염려한 스님들이 해방 후에 돛대바위가 있었던 자리에 수마노탑을 세웠다고 한다. 이 수마노탑이 해인사 터의 돛대 역할을 하게 되어 해인사는 차츰 안정을 되찾고

명실상부한 수행의 대가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한다. 해인(海印)이란 이름은 <화엄경(華嚴經)>에 나오는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인용한 말인데 삼매는 온갖 번뇌를 여윈 무념무상(無念無想)의 경지를 뜻한다. 이 경지는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길인데 진리의 세계에서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잠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해인(海印)'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해인사 터는 진리의 바다, 하늘세계로 나아가는 배라고 할 수 있다.

해인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엄사상을 꽃피운 화엄도량으로서 부석사, 화엄사, 범어사, 갑사 등과 더불어 화엄십찰(華嚴十刹)에 해당된다. 해인사는 신라 대 장왕(眞莊王) 때 의상(義相)대사의 법손(法孫)인 순응(順應)과 이징(利貞)이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순응은 의상대사의 법제자(法弟子)인 신립(神琳)을 찾아가 공부한 다음 중국에 가서 교학과(敎學)와 선(禪)을 깊이 탐구하고 귀국하여 가야산에 들어가 정진하였는데, 그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 애장왕의 할머니인 성목태후(聖穆太后)가 알게 되었다. 신심(信心)이 아주 깊었던 성목태후는 순응 스님에게 귀의하였고, 태후의 후원으로 순응 스님이 해인사를 창건하게 된 것이다.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 이정스님은 화엄사상 종조(宗祖) 의상대사의 법을 이어받은 이들이었고 화랑(希鄒)대사, 대각국사 의천(義天), 해봉유기(海峯有幾), 설파상인(雪坡尙彦), 벽안각성(碧巖覺性) 등 많은 화엄학의 대가들이 해인사에 주석하면서 화엄정신을 꽃피웠다.

해인사가 법보종찰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고려 대장경(高麗大藏經) 경판(經板)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해인사 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 불력(佛力)으로 몽고의 침략을 막고 제작되었다. 16년이 걸린 대역사(大役事) 끝에 1511종 6805권에 이르는 문헌들을 8만 개가 넘는 판에 새겼는데,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중국의 대장경 판을 훨씬 앞지른다.

경판에 사용한 목재는 자작나무인데 남해바다 여러 섬에서 나무를 베어내서 남해 관음포 앞바다에 3년 동안 담근 후 조각을 냈다. 이 조각들을 다시 소금물에 삶아서 그늘에 말린 후 대패질을 해서 거기다 경문(經文)을 붓으로 쓴 다음 글로 새기고 판 전체에 옷칠까지 했다. 소금물에 삶고 옷칠까지 했으니 벌레들이 범접할 수가 없었다. 고려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했는데 여말선초(麗末鮮初)에 해안지방에 왜구들이 발호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자 조선 태조 때 서울의 지천사(支天寺)로 옮겼다. 그러다 얼마 안가서 해인사로 다시 옮기게 되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해인사로 고려대장경을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해인사가 고려대장경을 만들기 전에 속장경을 주조한 대각국사 의천과 인연이 깊은 도량이기 때문이라는 설과, 가야산이 지덕(地德)이 두둑고 교통이 불편하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설과, 유학을 숭상했던 조선의 지배계층이 고려대장경을 유배 보내듯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해인사는 고려대장경이 옮겨오면서 법보종찰로서 거듭났다. 경판을 모신 장경각(藏經閣)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 위에 자리잡고 있어 부처님 머리 위에 불법이 없지 않는 형상이고 그 더 또한 해인사에서 가장 빼어난 명당이다.

해인사에는 조선 숙종 때 큰불이 두 번이나 나서 여러 동의 건물이 불타 없어졌고, 영조 때도 건물 수백 칸이 소실되었다. 순조 17년에는 엄청난 큰불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타버렸다. 그런데도 장경각만은 한 번도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불법의 상징인 대장경의 영험도 있겠지만 장경각 터의 지기(地氣)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이 가능한 일이었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녁에서 아침까지

빛소리로 꽉 찬 세상이다. 빛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허용되지 않는 땅 위에서 나는 집안에 옹박달짝 않고 박혀서 비를 바라보며 빛소리에 젖는다. 그 흐름 속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꼭대기 집이래요."
"예? 꼭대기 어디죠?"
"나물밭집이래요."
"아! 예, 잘 계시지요?"
"예에. 그렇죠 뭐. 그런데 아직 개가 있어요?"
"개가가 발정인 난 모양이었다. 우리 집 진땀개가 간만에 몸을 풀 기회가 찾아왔다. 마침 비가 그치려니와 빛방울이 성글다.
"어어구, 개가 아직 어리네요."
"에 이번이 처음이래요."

데려온 개를 진땀개 집 앞에 말뚝을 박고 묶는 중에도 유진이(진땀개 이름)는 활머니가 데려온 개의 볼록하게 부어오른 거시기를 연신 훑어댄다. 성급하게 올라타 으싸으싸질러대기도 한다. 하지만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바짝 붙이고 있는 암컷에겐 쉽게 먹히지 않는다. 붉은 거시기가 옆으로 빠지면서 뒷다리살 위를 비벼대다가 힘없이 툭 내려앉기를 몇 번, 드디어 흰 입이 성사되는가 싶으면 암개가 '개깽' 소리를 지르며 놀렸던 몸을 빼내는 통에 일은 이뤄지지 않았다.

"들어가서 차 한 잔 하시죠?"
"아네요. 일이 좀 되면 얼른 데리고 가야죠. 괜히 폐만 끼치는데. 돈도 안 가져왔는데."
"하지 않으면 좋을 말까지 덧붙인다. 서로 왕래하는 사이가 아닌 까닭이겠지.
"오늘 하룻밤 동안 놔뒀다가 내일 데려가시죠?"

'그럼 내일 일찍 오겠다'며 활머니 걸음을 옮겼다. 흰 머리카락이 뒤덮은 머리가 길을 따라 등등 산 위로 오르듯 멀어진다. 13년 전, 내가 이곳에 왔을 때는 검은 머리였는데, 피부도 그런대로 윤이 나는 아줌마였는데.

그치가 싶었던 비가 다시 기운을 내 내리기 시작했다. 다 내린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어제도 하루 종일 내렸는데 오늘도 밤새워 내릴 요량인가? 방에 들어와 앉아 빛소리를 듣는다. 개들이 있는 뽕나무 아래는 조용하다. 남의 집 개인데. 밤새워 비를 맞다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면 어쩐다! 다시 나가서 들뜬 담 위에 양철판을 놓고 묵직한 돌 몇 개를 올려놓아 개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두 마리 개는 여전히 똥이 잘 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런 중에도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비는 끊임없이 내린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깊어가고 빛속에서 서로 몸을 맞대고 있는 두 마리 개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끼이익 끼이익 끼이익 끼이익"
유진이의 소리는 아니다. 좀 더 어린 개가 혀를 혀 사정하는 소리다. 잠에서 깬 것도 화가 나는데 소리는 그치지 않고 이어져 다시 잠에 빠지질 못하게 막는다. 밖으로 나가서 전등 불빛을 비춘다. 유진인 자신의 집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 그러니 어린 암개가 자신도 좀 함께 있게 해달라며 사정을 한 것이었다. 무섭고 비는 오고 처음 와 본 곳, 괴물 같은 인간까지 있으니 어찌 사정하지 않았을까?

"야입마, 너 조용히 안 할래?"
"막대기를 들고 다가오니 금방이라도 자지러질듯 공포에 젖어 땅바닥에 짝 엎드린 채 나를 본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찌하지 못한 채 들어와 이불을 덮었다. 선잠 속에서 '깽깽'대는 개의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하얀 우비를 입은 활머니가 빛속을 걸어왔다. 두 마리 개는 다시 몸을 붙인 채 나란히 서 있었다. 활머니가 묶어놓았던 암개에게 다가가니, 유진이가 활머니를 향해 무어라 울부짖는다.
"꺼져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그래 미안해."

유진이에게 한 마디를 건넨 뒤 개의 끈을 풀어 준 활머니가 구름인 듯 산 위로 난 길을 향해 발을 옮긴다. 바라보는 유진이의 눈빛을 적시며 비는 그칠 없이 내린다. 허연 털에도 목결이에도 거기에 달린 줄에도 빗방울은 내려 흐른다.

■ 유승도 (시인)

현지사 소개 세번째 이야기 불신관(삼신론) '오직 현지사에만' 상주하시는 보신의 부처님 (1) 부처님 회상 영산불교에서 범보화 삼신(佛身觀·三身說)의 진정한 의미를 인류 역사 앞에 밝힙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16세 | 37년 | 25,000원 385년 | 25,000원) - 한글·영어판 | 읽어본 近畿 대흥사점 종교서적 부본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영혼체 윤회론 (158년 | 10,000원)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관음대교, 관음대교에서 천도까지 (187년 | 10,000원 311년 | 15,000원)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직접 부촉하신 관음대교본, 영육아 시기의 교육과 편안한 사후를 위한 완벽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최천무후 (238년 | 15,000원) 불세존의 범용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인 최천무후! 그녀가 불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되짚어 불교사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재정의하고자 한다.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제는, 부부 각각의 친·외가족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윗대 무주교조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 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부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부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은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던 무주교조와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최유한 천도제입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본원 042)525-5325, 5345 / 부산본원 051)554-5150